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부르크하르트 비어호프
Burkhard Bierhoff

사회적 성격과 교육

필자는 이 글에서 이론적 흥미를 끄는 개념인 사회적 성격을 토대로 오늘날 가정과 유년시절에 작용하는 교육의 변화 경향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사회적, 사회 성격학적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현대성을 상실하지 않고 있는 프롬의 사회심리학에 의거해서 개방적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교육의 사회적 과제

교육의 사회적 과제는 인간이 사회의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그리고 욕구충족의 수단을 생산함



으로써 자신과 자신이 관계하는 집단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그리고 ‘더 잘’ 살 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무엇이 잘, 그리고 더 잘사는 것인가에 관한 견해는 극히 상이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도덕윤리에서처럼 철학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미리 주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도덕관념에 따른다. 소비지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사는 것을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나 슈퍼마켓과 동일시한다. 그런 사회에서 삶의 최고 모토는 ‘오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가 될 것이다.

교육과 사회화는 인간이 주어진 사회적 조건들 속에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 사랑하고 노동하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행동방식을 제공해 준다. 사람들은 특정 목표와 대상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데, 이는 자유·권력·향유·행복·명예 등과 같은 이념이나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조국이나 국기, 자신의 혈통 같은 추상이 될 수도 아니면 자동차·컴퓨터 등과 같은 사물이 될 수도 있다.

에리히 프롬은 교육의 기능을, 사회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행동을 인간이 각자의 내면적 구조 안에 받아들이고 자기 고유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인간의 내면적 구조를 성격으로 정의했는데, 이때 그는 이중의 성격 개념을 사용한다. 각 인간의 고유함 및 개별성과 관련해서는 ‘개별적 성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 사회 및 관련집단 또는 하나의 사회환경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일치된 심리구조가 나타난다.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격상의 공통점과 사회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성들을 프롬은 ‘사회적 성격’이라 부른다.

사회적 성격

사회적 성격은 프롬 사회심리학의 중심개념이다. 프롬이 말한 사회적 성격이란 인간의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거나 필요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회적 구조인데, 이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마치 자유결정인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다.

프롬은 사회적 성격을, 인간의 에너지가 생산적 형태로 사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모으는 방식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프롬은 이런 에너지의 사용과정에는 사회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오용하고 왜곡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은 사람들 안에 저항하는 힘이 생기게 하여 ‘더 나은’ 또는 더 인간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역동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인간의 기본욕구와 극명한 대립관계에 있는 사회는 몰락하거나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그 사회 역시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임의의 욕구에 따라 설계되어서는 안 되기에, 프롬은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필연성과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회의 이해관계를 융합하는 사회조직이 부재하게 된다면 인간의 발전은 사회적 강요에 의해 상당 부분 저해될 것이다.

프롬이 보기에 사회는 인간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없으며 사회적 병리현상들은 사회심리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다. 그에 있어서 타협지향적 인간의 특수한 소외형태인 정상성의 병리학은 사회적 결함의 표현이자 결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이중적 소외이다. 즉, 인간은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한 왜곡으로 인해 자신의 소외를 인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인간은 무기력·싫증·절망 등의 감정을 자기 내부의 심층에 가두어 두고 ‘불유쾌함Malaise’이 표출되지 않도록 특이한 체형 방식(예를 들면 ‘시간을 때우기 위한 쇼핑’)을 선택한다.

손상된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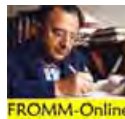
프롬은 성격이론을 통해 성격의 생산적 형태와 비생산적 형태를 제시했다. 현대사회에는 프롬이 권위적, 마케팅 지향적, 나르시시적, 죽음애호증적이라 표현한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퍼져 있다. 여기에서는 마케팅 지향성과 나르시시즘 지향성의 기본 특성을 예를 들어 기술하고자 한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인간들은 ‘병리학적 정상성’을 보인다. 이들은 기존의 틀 내에서 적절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여겨진다. 이들의 가변적 인성은 사회의 기대에 잘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닌 사회적 결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들의 인성이 특정한 방향으로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심지어 왜곡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에 완전히 무감각해지지 않는 한 이들이 지닌 불편, 불만, 권태, 만성적 우울 등은 그대로 존속된다.

프롬은 사회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고통받고 압박당하는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진 ‘무감각한 조직인간’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필자는 ‘손상된 주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보며, 이러한 인간이 자기 자신이나 상황으로부터 고통을 받거나, 저항적 힘을 발전시키거나,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변화시키거나 등의 질문을 열어놓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프롬은 마케팅적 성격과 나르시시적 성격을 ‘생산적 이상Ideal’과 구분하여 비생산적인 것으로 서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여 기능적으로 행동하며, 이들이 기능적으로 잘 적응하는 한에 있어서는 사회와 인간의 지속적 발전도 보장된다.

프롬은 마케팅 지향성이란 개념을 통해, 자신의 적응력(두뇌와 시각의 지향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인간의 체형적 현실을 설명했다. 동형同形을 추구하는 이러한 타협적 태도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유한 인성을 인력시장에 내다팔게끔 한다. 시장의 모델은 경제조직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조직의 원칙이 된다. 현대시장의 특징은 상품의 ‘교환가치’가 그 ‘사용가치’에 앞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성격지향성 중 하나인 마케팅 지향성에 동반되는 생각들을 보면, 타인의 기능적 대체가능성(회용 관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백화점’으로서의 자연과 천연자원, 재화와 용역을 통한 최대한의 욕구충족에 따른 ‘행복’ 등이 있다. 이런 사고 방식과 더불어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나날들은 힘들이지 않고 행복을 얻을 수만 있으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종종 삶에 권태와 우울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 뒤에는 무력감이 숨어 있다. 만약 스스로의 노력이나 치료를 통해서—소비나 다른 분산행위로 도피하지 않고—무기력하고 지루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인간은 오히려 이러한 감정을 통해 그 뒤에 숨어 스스로를 제한하는 그릇된 태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인간의 나르시시즘 역시 마케팅 지향성과 동일한 차원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프롬은 이를 별개로 분리하여 기술했다. 나르시시즘과 나르시스적 자기에의 체험은 이른바 ‘잘못된 자아’(프롬이 직접 이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그가 의미한 바를 정확히 표현하는 개념이다)와 관련되어 있다. 잘못된 자이는 아이가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려고 애쓰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아이는 잘못된 자아를 만들어 내며 ‘진정한 자아’가 표출되는 것을 억압한다.

나르시스적 성격은 자만과 무가치의 양극 사이에서 움직인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의식의 부족은 대개 과장된 행동, 겸손함의 결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의 미화, 실패에 대한 공포 등을 통해서 보완된다. 부풀려진 자신의 겉모습 뒤에는 외부로부터의 격려와 인정을 구하는 작고 미약한 ‘내’가 있다. 이때 타인과의 관계는 도구적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타인과의 관계는 타인이 나의 잘못된 자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나르시스적 성격의 사람은 타인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욕구와 자기기만의 측면에서 타인을 인식한다. 이들에게 타인은 기능화되고 조작될 수 있는 부분에서만 현실적이다.

즉, 프롬이 보는 나르시스적 성격지향성이란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제한되어 있고 자신의 감정이나 관심과 관련된 것만을 실제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자신의 것만을 중요시 여기는 나르시스적 인간은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지각知覺한다. 여기에서 자신의 것은 자신의 가족이나 관련 집단, 자신이 속한 국가, 세계관, 종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 지각은 결국 생생한 관계, 객관성, 판단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 프롬은 이렇게 극단적인 현실감 상실

이 발생하는 것을 핵심 인성이 깊이 손상된 결과라고 생각했다. 이런 나르시스적 장애는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프롬은 이런 장애의 극복을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과제로 보았다.

나르시스적 장애는 유년시절에 체험한 상황, 이른바 나르시스적 성장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자아발전에 구조적 결함이 생긴 유년기의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것은 주로 부모가 관심과 감정이입 부족으로 지도와 안내를 포기하고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거나 대중매체의 영향 아래 아이를 무작정 맡겨둔 경우에 나타난다. 그밖에 ‘공개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익명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도 아이에게 타협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영향을 미친다. 프롬은 인간이 자신의 나르시스적 자기에 극복할 가능성과 타협주의적 태도를 수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단지 그는 나르시스적 지향성과 마케팅 지향성을 인간의 생산성을 방해하는 전형으로 기술했을 뿐,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성격학적 토대로서는 다루지 않았다.

사회적 성격의 변화

사회적 성격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며, 또한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자체적인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프롬이 스케치한 사회적 변화의 개념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 이외에도 존재와 의식의 변증법, 토대와 상부구조 모델, 그리고 생산관계 및 변화하는 생산력 간의 모순에 관한 생각 등이 담겨 있다. 프롬이 보기에, 사회적 성격의 구조적 변화는 현재 진행되는 사회구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조의 변화보다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회경제적 조건과 성격구조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성격의 변화가 사회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거나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교육과정에서 사회적 성격은 나이든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이양된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성격도 그대로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면모나 형태를 띠게 된다. 현 시대에서는 이러한 변화과정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변화가 사회적 성격에 소급되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성격의 구성형식은 분명히 바뀌었다. 새로운 체험 가능성과 체험 주체로 이루어진 새로운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급속한 변화 때문에 그 누구도 미래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유년기·학교 교육은 사회화하는 여러 영향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다. 프롬 스스로는 자신이 익명이라고 말한 권위가 커지는 반면 개인의 권위는 감소한다고 말했다. 많은 분야에서 사람들은 복합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단선적單線的 모델로부터 벗어난다. 그리하여 교육 및 사회화 과정에서도 역시 그 효과는 제한적으로만 계산 가능하며, 전체적인 계산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진 현실을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변화하는 상황과 요구에 알맞게 대처하는 주체의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각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사회적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하여 자신의 체험과 행동을 통해 주어진 현실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하며’, 최소한 단순히 그대로 재생산하지는 말아야 한다.

일상적 삶의 마케팅 지향성과 노동과정에서 생겨나는 요구들로 인해 성격 속에 각인된 인간의 일반적인 유연화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구조가 점점 세분화되는 데 대한 직접적인 반응일 것이다. 다원화와 개별화의 경향, 전체에 대한 조망 가능성 및 통일성의 상실 등으로 인해 한때 분명한 지향의 틀을 제공했던 기존 구조들이 외면당하고 있다.

새로운 것의 발생

현대인은 위태롭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회적 삶의 구조들이 싹트고 세대간의 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중장년층의 경험을 경시하는 풍조, 그리고 어른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아동과 청소년들만의 하위문화下位文化의 급격한 증가 등은 현재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문화적 요소들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와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와 이들이 현실을 가공하는 방식, 그리고 이들의 열정적 성향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세대간의 관계에서도 낯설음과 불신이 생겨나고 있다. 경험의 지속성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체험세계 안에서도 단절만이 관찰된다. 새로운 세대 구성과 성격구조의 차이로 인해 공통의 체험세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따라서 세대간의 이해는 축소되어 버린 듯하다.

오늘날의 청소년 교육에서는 기존의 것들과 대결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때 교육 및 사회화 과정은 개별화 또는



Propriety of the Erich Fromm Document Center. For personal use only. Citation or publication of material prohibited without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Eigentum des Erich Fromm Dokumentationszentrums. Nutzung nur für persönliche Zwecke. Veröffentlichungen – auch von Teilen – bedürfen der schriftlichen Erlaubnis des Rechteinhabers.

‘자아획득’의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교육 및 사회화 과정이 기계적으로 단순히 찍어내는 과정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요구와 사회화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주체를 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오늘날 교육이론의 핵심은 자신의 현실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주체를 길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주체는 사회와 동떨어진 현실을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회화와 개체화의 기본과정에 담긴 변증법적 교차 속에서 현실을 만들어 낸다. 개체는 처음부터 사회화의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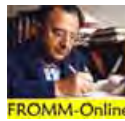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흔히들 오늘날의 고도로 발달된 산업사회에서는 변형의 과정이 늘 코앞에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변형의 기준을 과거에서 가져올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기준들은 기존의 문화 내에서 만들어지고 관철되어야 한다. 종種으로서 인간의 생존은 이제 위협에 처해 있다. 기술 진보에 대한 전세계적인 재평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삶에 유용한 보편적 윤리이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 동성이나 이성인 타인과의 관계, 같거나 다른 인종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비롯해 학문 및 기술문명의 업적이라 불리는 것들과의 관계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보편적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반문화’로서의 새로운 문화는 스스로의 인식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들은 자신들이 비판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회가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인식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성과 한계를 알고 의식적으로 자기변화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주된 관심은 누구보다도 현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우선적으로 당면해 있는 세대, 즉 아이들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변화하는 유년기

반론이 있을지라도, 오늘날의 유년기는 대개 가정에서 보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아이들의 90%는 친부모 밑에서 성장한다.) 아이는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교육을 받고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과 사회화 기능이 가정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유년기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예를 들면 편모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서술이 불가능하다. 물론 가정이나 아이 모두 사회경제적이고도 사회문화적인 삶의 조건이 변한다는 공통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유년기는 ‘사회의 대리인’으로서의 가정 안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다. 공공의 공간 역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유년기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흔한 말로—‘파괴’하기도 한다.(성인에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에게도 모든 것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밀’은 없다.) 오늘날의 유년기는 교육화된 유년기이다. 즉, 교육학이나 게임 및 레저산업에 의해 장악된 ‘잘못 계획된’ 유년기이며, 수요와 소비의 사고방식에 의해 지배되는 유년기이다.(즉, 아동이 구매자와 소비자의 위치로 전락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생각을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교육과 관련하여, 순종과 훈련을 요구하는 과거의 교육에서 관용



적이고 부분적으로는 무관심하기까지 한 자유방임적인 교육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는 통제에서 허용과 무관심으로 변화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경향이 교육 전반에 걸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이한 교육 스타일이 병존하고 있으며, 교육현실을 결정하는 요인은 대부분 사회적 환경과 관계가 있다. 또 다른 경향은 가정교육의 약화로서, 교육과정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과 그 반대급부로서 '익명적' 대중매체의 영향과 동류집단에서의 자체적 사회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위기현상들은 개별화의 부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각 개체에게는 자신의 전체적 삶과 가정 및 직업에 관련된 결정들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단독으로 내리는 것은 개체 자신의 능력으로 보나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보나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결정에 대한 요구는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삶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개별화 및 다원화의 시각이 성급하게 유년기에 부과된 결과, 위험한 유년기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아이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유년기는 어른들의 두려움과 소망을 투영하는 스크린에 불과하다. 위험한 유년을 일반화시키는 경향 또한 적절치 못하다. 전쟁중이나 전후 시기에 성장한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아이들은 훨씬 적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니면 최소한 그 시절과는 다른 종류의 부담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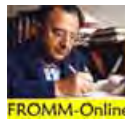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따라서 유년기에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각자가 지닌 성격의 결과인 현재의 모습과 현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프롬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현실관계는 두뇌적인 면만이 강조되어 인식적이고 구성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두뇌형 인간은 높은 수준의 지성과 참여에 대한 무관심, 변화무쌍한 지향성 등 때문에 냉정하고 따분하며 쉽게 친해지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인간 유형의 감성적 삶은 그의 사고구조만큼 세분화되지도 발전하지도 않는다. 컴퓨터가 거실과 아이들 방에까지 침투했다는 것이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제 아이들은 과거의 세계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이러한 경향에 빠져 있다. 아이들의 체험세계 안에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극히 상이한 경험들이 혼재해 있다. 이 경험들은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관계도 전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진단이나 유년기에 관한 서술은 모두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디어 소비의 증가와 함께 장난감이 첨단 기술화되는 경향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인형이 말을 하고 장난감 강아지가 꼬리를 치며 짖는 등 장난감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상상력의 가치는 더욱 떨어진다. 왜냐하면 상상력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작된 어떤 사물이나 장난감에게는 마술과도 같은 자신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죽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의 죽음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기도 한다. 각종 PC 게임의 영웅은 모니터상에서 '죽음'을 당하고 들것에 실려나갔다가도 키 하나만 누르면 다시 살아나 새로운 레벨의 게임에 투입된다. 다마고치 같은 가상 애완동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해부용



괴물'도 장난감 기술이 극대화된 경우의 한 예이다. 생명이 없는 이런 장난감이 실제 동물과 같이 돌보기 힘든 생명체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해부중에 흐르는 피는 실제 피가 아니며, 연구를 위한 파괴적인 욕심으로 바뀌어 버린 호기심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물론 오늘날의 당면 문제가 컴퓨터 게임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기술적 보조도구나 게임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 말고,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인 상호교류의 태도에 과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겨났는가? 가정생활의 중심을 이루었던 식탁은 이제 TV와 컴퓨터에게 완전히 자리를 내주었는가? 아니면 그 형식은 변했을지언정 만남의 공간과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서 사회적 교류 차원의 어떤 의사소통적 요소가 발견되는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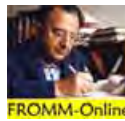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5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열다섯 살 난 소년의 말은 같은 또래의 많은 아이들이 현재 체험하고 느끼는 바를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자아의식과 시간의식을 잘 드러내 준다. 필자가 소년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소년은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대답만 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를 대하는 방식을 모두 읽어내기란 불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현실을 생산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력에 있어서 이들이 한두 세대 이전의 아이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부모

를 신뢰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현대의 부모들은 아이를 가장 귀중한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에 걸맞게 아이들을 잘 돌본다. 이때 첨단과학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커다란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귀중한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자기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재교육을 촉구하는 어떤 글에 이런 구호가 실린 적이 있었다. ‘1등급 아이를 가질 수 있는데 왜 2등급 아이에 만족하는가?’

여기에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 보려는 욕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심리학에서 ‘투사적 동일시¹⁾’라고 부르는 문제이다. 부모는 치열한 생존경쟁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대개는 깊은 성찰이 없는 생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다가 부모는 자녀에게서 약한 모습을 발견하고서, 약자인 자녀를 대상으로 뒤늦은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히 ‘너는 우리보다 나아야 한다’는 식의 자식교육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대리적 자아실현을 위한 이러한 부모의 노력은 부모 자신의 능력이 정점에 다다른 시점에서 나타난다. 즉, 좀더 많이 갖고 좀더 높이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고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당신은 여기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새롭게 방향설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Projective identification : 멜라니 클라인의 개념으로,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을 외부 대상에게 투사하고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나쁜 자기’로 생각하게 된다.



압박받는 주체

현대의 주체들은 종종 압박받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지나친 요구에 시달린다고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는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비일상적 체험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한다.(야외활동이나 흔히 X-게임이라고 부르는 극한 스포츠 등과 같이 소비와 레저산업이 합작해서 만들어 내는 극한상황들을 생각해 보라.) 인간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에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른바 ‘공포의 쾌락’이라 부른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의식을 가능한 높게 유지하거나 더 높이려 한다. 아니면 대용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낮은 가치의식을 보충하려 한다. 예를 들면 유행에 따르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권위에 복종하는 행위가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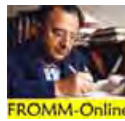
자기가치는 현실관계 속에서,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만약 인간보다 사물이 더 중요해진다면 관계방식도 사물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도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시장에서 획득해야 한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즉, 자신의 가치도 상품처럼 값이 매겨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반해 협력·이해심·이타주의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진다. 광고는 오늘날의 상품 세계가 갖고 있는 허깨비 같은 현실을 잘 보여준다. 광고에서는 인간처럼 생긴 물건이 등장하여 말을 한다. 이 물건들은 인간의 안녕을 걱정하며, 인간들로 하여금 남들에게 인정받고 일상생활을 잘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편안함을 얻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체험현실, 즉 인간의 자아체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체성이란 한 인간이 세계와 타인에 대한 관계를 토대로 하여 맺게 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자기가치 의식의 차원을 내포한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치’를 획득할까? 자기가치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이다.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들의 새로운 체험형식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새로운 체험형식이 기성세대의 경험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러나 폄하적이고 때로는 문화 비관주의적이기조차 한 이런 비판보다는 이와 같은 새로운 체험 형태에 어떤 기회가 내재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무기력과 단조로움이 아니라, 자기가치와 외부 영향력에 의해 규정된 정체성 체험을 가능케 해주는 기회 말이다. 오늘날의 체험 형식들은 과연 어떤 수준의 진보와 퇴행을 내포하고 허용하고 있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일상에서 겪는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자아체험과 영향력을 찾고 있다. 이러한 불안함을 잠깐이라도 잊기 위해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제공하는 말초적인 자극을 찾는다. 그리고 살아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극의 강도를 계속 높인다. 이런 태도는 종종 자기변화를 막는데, 왜냐하면 고통과 노력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프롬은 현대의 병인 불안함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대해, 이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나친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사람들의 체험세



계는 권태와 짜증, 만성적 우울증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다. 프롬은 인간이 점차 사물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병리학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프롬은 인간의 조건 *Conditio humana*에 위배되는 요소를 발견한다. 프롬에게 있어서 실제 인간은 생산적 부분과 비생산적 부분이 ‘혼재’해 있다. 인간의 본성에는 관계·생명력·성장의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역동적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하여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상의 고통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의식적 개성’으로부터 배제시킨 모든 것들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다.

전 망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 것이다. 매일 되풀이해서 자기기만이 행해진다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그리고 일상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은 이런 일상의 불안함을 의식적으로 참아내며, 이를 ‘인식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타협주의와 소비행위로 도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 시대에는 영원히 유효한 가치와 전통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해결책이라는 것들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이런 시대에서 주체는 오직 성찰을 통해서만 자신의 현실을 습득할 수 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문명의 근본적인 변형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전통적인 삶의 형식을 의문시하거나 해체하고 있다. 더욱이 그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변형의 과정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비전을 동반한다. 새 시대를 알리는 메시아주의적 선각자로서 프롬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그의 사회심리학적 진단과 사회철학적 성찰에 담긴 예언자적 힘과 설득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억압된 주체, 즉 인간과 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위험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오는 미래를 받아들이며 살아 가야 하는 인간을 프롬은 ‘냉소적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것은 지식적 이데올로기의 환상과 신화를 벗어던지고 무조건적으로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제 인간에게 남은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사회화라는 억압적 형식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고 이성과 사랑, 생산적 노동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생존에 성공하든가, 아니면 파멸하는 것이다. 파괴적 경향은 휴머니즘에 맞추어진 또 다른 경향 안에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의 혼합은 비생산적인 요소와 생산적 요소가 혼재해 있는 인간의 성격 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앞으로 사회적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마케팅 지향성과 나르시시즘 같은 기존의 성격들이 어떻게 바뀌어 갈지, 미래에도 생산적인 ‘사회적 성격’이 존재할 것인지 등의 질문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미래의 모습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의 변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Burkhard Bierhoff : 1950년 출생. 도르트문트 대학 강사이며 라우 지츠 대학 사회학과 교수. 주요 연구분야는 교육이론과 주권이론이며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의 창립 멤버이다. 주요 저술로는 <사회적 성격으로부터 교육의 인문주의적 비판으로> (in: Erich Fromm und die Frankfurter Schule, hg. von M. Kessler und R. Funk, Tübingen :Francke, 1991, p.11-22) <노동과 성격과 교육의 관계에 관하여> (in: Wissenschaft vom Menschen.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Erich-Fromm-Gesellschaft, Band 4Ö Arbeit-Entfremdung-Charakter, Münster: LIT-Verlag, 1993, p.29-62) 등이 있고, 저서로는 《에리히 프롬—분석적 사회심리학과 예시적 사회비평》(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93) 등이 있다.